



왼쪽부터 신혜성, 전진, 이민우, 앤디, 김동완, 에릭

고려로 시간여행

고려 개국 1100년 특집 다큐
KBS 오늘부터 2부작 방영

“나이 60에도 댄스로 활동하겠다”

신화 데뷔 20주년 스페셜 앨범 발매
“장수 비결은 없고 초심 잃지 않을 뿐”
아이돌업계 철저한 상품화 반성해야

데뷔 20주년을 맞은 최장수 아이돌 신화가 오랜 시간 틈을 지킨 비결이 “없다”고 말했다. 신화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아모리스 타임스퀘어 앞에서 스페셜 앨범 ‘하트’(HEART) 발매 기자회견담회를 열고 팀이 스무 살을 맞이까지 소회를 밝혔다. 1998년 3월 24일 데뷔한 신화는 정규앨범 13장을 낸 현재 진행형 아이돌이다. 단 한 번의 멤버 교체나 해체도 없었다. 김동완(39)은 “사실 비결은 없다. 비결이 있다면 그걸 통해 다들 장수하고 잘 살 것이다. 운이 좋았던 게 제일 컸다”고 웃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후배 중에 팀이 와해되고, 문제를 일으켜 연예인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더라.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다르다. 사랑이 제일 중요한 사람도 있고 여가나 가족이 중요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추구하는 행복의 방향을 이해해줘야 관계가 오래간다. 저희는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운명의 굴레가 서로를 이해할 수밖에 없

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멤버들은 ‘초심’을 언급했다. 리더 에릭(본명 문정혁·39)은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선생님이 프로듀싱해주셨을 때 신화의 첫 모습이 ‘트렌디한 댄스 음악을 하는 그룹’이었다”며 “20년이 지났어도 멤버들은 초창기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현재에 맞는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려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39)도 “초심이 무너지면 언젠가는 무너진다”고 거듭했다. 김동완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가 더 잘 되길 바라는 건 팬밖에 없더라”며 “그래서 고집이 생겼다. ‘언젠간 헤어지겠지?’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래, 죽을 때까지 한 헤어져 주마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완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가 더 잘 되길 바라는 건 팬밖에 없더라”며 “그래서 고집이 생겼다. ‘언젠간 헤어지겠지?’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래, 죽을 때까지 한 헤어져 주마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완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가 더 잘 되길 바라는 건 팬밖에 없더라”며 “그래서 고집이 생겼다. ‘언젠간 헤어지겠지?’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래, 죽을 때까지 한 헤어져 주마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완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가 더 잘 되길 바라는 건 팬밖에 없더라”며 “그래서 고집이 생겼다. ‘언젠간 헤어지겠지?’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래, 죽을 때까지 한 헤어져 주마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에릭은 “요즘은 기자분들 중에도 신화창조가 있더라. 저희를 응원하던 학생이 자라서 사회의 적재적소에 계시기 때문에, 신화가 힘을 발휘할 시기는 지금부터인 것 같다”고 농반진반 말했다. 우에 좋기로 유명한 팀답게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도 서슴치 않았다. 김동완은 예쁜 호숫가에 집 여섯 채를 짓고 함께 살고 싶다면서 “요즘 정부 정책과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부동산 가격이 잡힐 거라 생각한다”며 “그때 호수 근처 땅을 알아봐서 꿈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1세대 아이돌로서 오늘날 업계도 작심 비판했다. 김동완은 “아이들이 일하는 세상이 과연 행복한 곳인지 늘 생각한다. 자살한 후배들을 봐도 그렇고, 처절하게 상품화되는 여자 아이들을 봐도 가슴 아프다”며 “선배들이 반성하고 제작자들도 자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이돌 산업이 너무 일본을 따라간다. 이런 시장을 가진 나라에서 과연 페미니즘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 모두 고쳐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화가 이날 공개한 20주년 스페셜 앨범 ‘하트’에는 타이틀곡 ‘키스 미 라이크 댓’을 비롯해 윤미래가 피쳐링한 ‘인 디 에어’, ‘레벨’, ‘히어 아이 캡’, ‘러브’, ‘떠나가지 마요’까지 총 6곡이 담겼다. 신혜성(본명 정필교·39)은 타이틀곡 뮤직비디오에서 데뷔 이래 처음으로 키스신에 도전했다. 에릭은 “기존에 보여드린 곡과 달리 힘을 덜 쓴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면서 “저희는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룹이다. 항상 빠르고 강한 곡을 하면 비슷한 퍼포먼스밖에 보여드릴 수 없기에 다른 느낌을 주려고 고심했고, 지금 나이에 어울리는 절제된 퍼포먼스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신화는 10월 6~7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20주년 기념 공연 ‘하트’를 개최한다. 체조경기장은 신화의 첫 콘서트 장소이자 지난 2008년 1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연 곳이다. 공교롭게도 H.O.T., 지오디(god), 젝스키스 등 1세대 아이돌도 비슷한 시기에 콘서트를 연다. 신화는 입을 모아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멤버들을 대신해 신혜성은 갓 데뷔한 신인처럼 “안녕하십니까. 어린왕자 신혜성입니다”라고 우렁차게 외치며 꾸벅 인사했다. “신화하면 ‘20년 장수그룹’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세련된 음악과 무대를 준비해 방송과 공연을 열심히 하는 댄스 아이돌 그룹이라고도 봐주시면 좋겠어요. 전 국민이 저희 본명을 알 때까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KBS 1TV는 고려 개국 1천100년의미를 되짚기 위해 특별 기획 다큐멘터리 2부작 ‘남북 공동 프로젝트 10년 개성만월대’와 ‘코리아 고려를 만나다’를 각각 오는 30일 밤 10시와 9월 1일 밤 9시 40분에 방송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1천100년 전에도 한반도에서는 ‘통일’로 가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외세 간섭없이 완전한 통일을 이룬 최초의 국가, 고려가 건국된 것이다. 제작진은 그동안 닿을 수 없던 휴전선 너머 우리 역사를 찾아 고려의 심장부, 개성으로 들어갔다. 1부에서는 역사의 부침 속에서 10여년간 계속된 남북공동 프로젝트, 고려공성만월대 발굴 현장을 생생하게 공개한다. KBS가 단독으로 기록한 37개년(2011, 2014, 2015년)의 발굴 영상을 중심으로 주요 유적과 유물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고려인’이란 이름으로 하나가 된 남북 발굴단원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2부에서는 세 명의 전문가와 함께 1천년 전 고려로 시간여행을 떠나 당시의 문화, 가족제도, 역사 등을 풀어낸다. 고려는 세계가 우리를 부르는 이름 ‘코리아’(KOREA)의 어원이기도 하다. 1천년 전 고려의 수도 개성, 현재 남과 북의 수도인 서울과 평양도 모두 고려 시대 개발된 신도시들이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아시아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백미인생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TV소셜 파도야 파도야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2018 아시안게임 <유도/농구/야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50 2018 아시안게임 여자농구 준결승 <코리아:대만>
11	00 이웃집 찰스(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인간극장 스페셜(재)		
12	00 KBS 뉴스 12 10 여기는 자카르타 <농구>	50 세상의 모든 다큐(재)		
1		40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 야구 슈퍼 라운드 <대한민국:일본>		40 2018 아시안게임 야구 슈퍼 라운드 <대한민국:일본>
2	00 공룡 메카드 30 드래곤에그			
3	0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0 저널리즘 토크쇼 J			
4	00 사사건건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30 속보이제는TV 인사이드	20 2018 아시안게임 <유도/배구/핸드볼>	30 2018 아시안게임 남자농구 준결승 <대한민국:이란>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40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 핸드볼 여자 결승 <대한민국:중국>		
8	25 내일도 맑음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특선영화 보안관
9	00 KBS 뉴스9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10	00 특집 고려건국 1100년 2부작 One Korea 55 UHD 스텐더	00 양코르 드라마 스페셜 <만나게 해, 주오>	00 MBC 뉴스데스크	
11	00 KBS 뉴스라인 40 누가 북한을 움직이는가	10 해피투게더 1~2부	00 구내식당-님의 회사 유랑기	05 2018 아시안게임
12	30 인간극장 스페셜	40 세상의 모든 다큐(재)	35 숭배족집(재)	10 나이트라인 40 닥터 365 50 테마스페셜(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05:30 통일의 길 <숨은 북한 찾기>	12:00 EBS 정오뉴스
06:00 한국기행(재)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06:20 세계테마기행	13:00 지식채널e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10 장수의 비밀
07:30 꼬마버스 타요	13:40 다큐 시선 <공론화를 아십니까>
08:00 당동맹 유치원1~2	14:30 엠바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08:30 미니특공대 X	14:45 로보가 폴리(재)
08:45 칼랄라 뿌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09:00 두다다콩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09:30 원더볼츠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0:30 한국기행(재)	16:30 칼랄라 뿌우(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스파이스 치킨명과 단호박 샐러드>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17:15 두다다콩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午	未	申	酉	戌	亥					
36년생 추구해 왔던 가치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48년생 패도난마 해야 획기적 계기를 마련한다. 60년생 불안정한 구상은 실패를 이끄는 실마리가 된다. 72년생 얼마나 치밀 하느냐의 여부가 관건이 된다. 84년생 항상 똑같이 보아 왔던 문제가 있다. 행운의 숫자 : 49, 94	42년생 인식하고 있는 폐단을 완전히 개선하지 않으면 해롭다. 54년생 고찰이 선행 되어야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다. 66년생 성과가 불만족스럽겠다. 78년생 힘을었을 때 근력 운동이 되는 원리를 알아. 90년생 균형을 매운다면 오히려 튼튼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3, 45	37년생 의욕적으로 실행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49년생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가 따로 있다. 61년생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73년생 개성하지 않으면 많은 손재가 따른다. 85년생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0, 40	43년생 생산적으로 나아가야한다. 55년생 진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오해를 받는다. 67년생 구관이 평관임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된다. 79년생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1년생 평생시대로만 진행한다면 무리한 결과를 낳으리라. 행운의 숫자 : 27, 47	39년생 충천하는 기세로 크게 번창 하리라. 51년생 실제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판세임을 인식하게 된다. 63년생 일부에 문제점이 드러난다. 75년생 굳이 속마음을 내비칠 필요는 없다. 87년생 걸음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의 부실함이 상당하다. 행운의 숫자 : 39, 16	38년생 제사 덕분엔 이밥을 먹는 격이로다. 50년생 현실에 충실 하는 것이 옳다. 62년생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중박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 74년생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니라. 86년생 도토리 키 재기 식이니 별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25, 01	44년생 신성한 충격을 받게 되는 날이다. 56년생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는 날이 될 수 있다. 68년생 발 빠르게 대응 조치하면 문제점은 해결 될 것이다. 80년생 단순한 관점에서의 오판을 주의하자. 92년생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백 번 낫다. 행운의 숫자 : 52, 37	40년생 수고로움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미래를 보며 대응 하자. 52년생 시간적 여유가 꼭 필요하다. 64년생 구색을 다 맞추다보면 특별함을 도모하기 힘들다. 76년생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는 것이 유익하다. 88년생 과실이 열려 있으니 풍요로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0, 87	45년생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될 것이 아니라. 57년생 기본에 충실해야만 닥쳐오는 현안에 대비할 수다. 69년생 생 착각한다면 큰 차이가 벌어진다. 81년생 천신만고 끝에 난공불락에 점령하는 이치다. 93년생 동무 따라 강남 갈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91, 76	41년생 여유를 갖고 일단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53년생 속명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난립하면서 분주할 것이다. 65년생 조금은 다듬을 필요가 있다. 77년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만 한다. 89년생 마무리까지 확실해야 비로소 취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7, 81	34년생 주변 환경에 의해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46년생 미진한 부분을 손질하자. 58년생 극한적인 돌발 사태가 보이니 매사에 신중 하라. 70년생 습관이란 위험의 자매이니라. 82년생 상대에게 끌려 다니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가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41, 80	35년생 변화 가능성은 열여 두되 초과할 필요는 없다. 47년생 무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59년생 발전의 주춧돌이 될 만한 길사가 생길 것이다. 71년생 위험 요소를 무시하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83년생 여태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 했던 경이로움이 있다. 행운의 숫자 : 56, 15